

질문의 미덕

이시우

1990년대 북한바로알기 운동은 통일운동의 시작이었다. 그때 배운 몇 가지 지식덕분에 금강산 관광이 열렸을 때 나는 북한 관광안내원과 북에 대해 아는 척 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다. “선생님 옷깃에 단 뺏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는 답 대신 질문에 토를 달았다. “아니 북을 공부하셨다는 분이 뺏지가 뭡니까?” 나는 당황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한심하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더니 답변했다.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원래 질문을 다시 반복하지도 못하고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한참 뒤 그 장면이 다시 생각났다. ‘휘장을 모른 게 그렇게 정색할 일인가’ 싶은 섭섭한 마음도 들었다. 단어하나만으로도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될 수 있으니 이해관계 사안이나 정책이나 이념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북한바로알기 운동은 북한과 관계를 맺기 위한 시작이 아니다. 전부이다.

불안, 공포, 혐오는 무지에서 온다. 유럽에 성곽도시가 만들어지자 성 안과 밖의 문명은 전혀 다른 격차로 벌어졌다. 성 안에 들어 올 수 없는 이민족, 유랑민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기에 그저 바바바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고 바바리안이란 단어가 만들어졌다. 야만인을 뜻하는 이 단어는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단어가 아니다. 그 자체에 불안, 공포, 혐오를 담고 있는 단어이다. 객관적이기 위해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말처럼 위선적인 말은 없다.

한편 앎이 상대를 위한 지배수단일 수 있다. 인도학이 정립된 곳은 인도가 아닌 영국이었다. 인도 지식인들은 인도를 공부하기 위해 영국으로 유학했다. 지배를 목적으로 한 지식은 지배를 위한 수단이다. 공자는 말했다.

‘함께 공부할 수 있으나, 도를 같이 깨달을 수는 없고, 도를 같이 깨달을 수는 있으나, 자리를 같이 할 수는 없고, 자리를 같이 할 수는 있으나, 권력을 같이 할 수는 없다.’(『子罕』, 『論語』)

지식의 시작도 끝도 권력에 있음으로 지식은 지배를 위한 수단이 된다. 객관적 지식이란 지배 이데올로기의 은폐물일 뿐이다. 그래서 ‘알기’가 아니라 ‘바로 알기’가 중요한 이유이다.

이 책이 내세운 목표인 ‘북맹탈출’은 우리 자신이 북맹임을 전제한다. 아는 체 하기 없기이다. 북한을 앎으로서 북한과 동등한 위치에 서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알수록 더 아래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알수록 질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자가 대사구자리에 있을 때 제사절차를 매번 묻자 사람들이 “누가 공자더러 예를 안다고 했는가. 태묘에 들어와서는 매번 묻는구나”라고 비웃었다. 이에 공자는 “매사에 자세히 묻는 것이 예이다”라고 답했다.(『八佾』, 『論語』)

이 책은 불안과 공포와 혐오의 무지와 싸운다. 지배수단으로서의 지식과도 싸운다. 그 대신 질문한다. 알수록 더 묻는다. 그것이 바로 예로서의 지식이다.